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2심도 5년... “오로지 남탓”

아파트 경비원 상습 폭언·폭행한 혐의 입주민 “합의하겠다” vs 유족 “거짓말” 1심 “사안 무겁고 죄질 나빠” 징역 5년 2심 “입주민, 오로지 남탓만” 항소기각

3중 주어진 자신의 차량을 밀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괴롭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입주민이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종렬)는 26일 상해 등현이로 기소된 입주민 심모(4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부인하는 범죄 사실 또는 녹취록 등은 목격자 진술, 112 사건처리 내용과 ‘무슨 억하심정으로 고소·고발했는지 확

인하려 했다’는 피고인 스스로 진술에 의해도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에 이르러서도 설득력 없는 주장을 했다”며 “오로지 남 탓 만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유족, 언론, 수사기관, 법원이 피해자의 말만을 믿는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피고인은 이같이 현 상황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자기 합리화만 꾀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이상 반성문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을(乙)’의 위치에 있어 이를 특별양형인자로 삼아 형을 가중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선고를 약 20분 앞두고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을 팔아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으니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구”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이 마련된다고 해서 합의가 된다고 장담할 수조차 없어 보인다”며 “집이 팔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은 신속재판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구속기간 만기도 다음달 11일로 임박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과 만나 “제 동생이 하늘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영면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라는

것은 없었다”며 “지금에 와서 우리 유가족들과 합의 진행 중이다. 아파트 팔아서 합의하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든 빠져나오려는 안 좋은 생각을 가진 것이다”고 언급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대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모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최씨는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같은 해 5월10일 재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민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모씨가 생전 근무하던 공간.

1심은 심씨의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기동취재본부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사전점검’ 26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도선동에 위치한 삼성키즈아이소아청소년과에 방문한 성동구 직원이 위탁의료기관 점검을 하고 있다. 성동구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5세~74세 연령층의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역 내 89개 위탁의료기관의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목포경찰, 보이스포싱 외국인 수금책 검거

목포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단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4회에 걸쳐 1억 2200만원을 절취한 보이스포싱 수금책 외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총책으로부터 “피해자가 속아 사기단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 돈을 훔쳐 상선에 전달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목포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전문조직을 수사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기성용 의혹’ 폭로자, 변호사 고소... “허위 입장문 배포”

명예훼손 형사고소·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입장문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주장



프로축구 FC서울의 주장 기성용(32)씨로부터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기씨의 법률대리인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가 이날 기씨 측 송상영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기씨의 법률대리인인 송 변호사가 지난 25일에 배포한 입장문은 대부분 명백한 허위사실들이며 일종의 프레임에 씌우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오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지난 25일 송 변호사는 기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자와 관련,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수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언론을 통해 공익을 위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용기를 냈다면 실명으로 얼굴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하루라도 빨리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와서 폭로 동기를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자 언론에 ‘돈 필요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며 “피의자는 막상 자신의 중학교 후배를 통해 기성용 선수에게 ‘오보라고 해주고 돈 받아야지’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지난 3월22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24일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가서 C선수가 기씨로 특정됐다. 서선욱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